사장님께 매임 없는 선민의 직장생활

(사사기 3:7~31)

7.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8.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팔 년 동안 섬겼더니
9.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옷니엘이라
10.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옷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11. 그 땅이 평온한 지 사십 년에 그나스의 아들 옷니엘이 죽었더라

오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사장님께 매임 없는 선민의 직장생활>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사장님께 매임 없는 선민의 직장생활'

1997년쯤에 "사장님 나빠요!"라는 유행어가 하나 있었는데, 개그맨 정철규 씨가 외국인 노동자 블랑카를 연기하며 유행시켰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 유행어가 이제는 좀 색이 바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문제는 여전히 '사장님 나빠요!'라는 말이 뜻하는 대로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고용허가제, 퇴직금 문제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행어가 뜻하는 바가 비단 외국인 노동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저시급이 얼마 전에 5,580원에서 6,030원으로 450원이 올랐는데, 여전히 4,000원~5,000원을 고수하는 사장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적발이 되어도 그동안의 미지급분만 지급하면 되므로 사장님들이 지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최저시급이 주로 적용되는 곳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에게만 '사장님 나빠요!'라는 말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상태가 탄탄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직원으로 월급을 많이 받고 다녀도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장님 나빠요!' 혹은 '상급자 나빠요!'라는 말을 경험하지 않으며 스트레스 없이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죽 했으면 스마트폰 게임 중에서 “사장님 때리기”라는 게임이 있어서, 설명을 보니 열심히 준비한 결재 서류를 사장님이 7~8번이나 내팽개칩니다. 그 다음날도 최선을 다해서 결재 서류를 가져갔지만 또 내던집니다. 이렇게 열 받은 상태에서 사장님을 발로 차도록 조작을 할 수 있고, 사장님을 발로 뻥 차면 회사의 벽을 뚫고 날아가서 땅에 떨어지는데 마치 운석이 떨어져서 땅이 푹 파이는 것처럼 나뒹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이 날아가고 많이 굴러가면 점수가 높아지는데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선민은 사장님이 세운 회사에 들어가서 직장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장님이나 직장상사를 때리는 게임이나 하면서 참고 견뎌야 합니까? 제도적 장치만 탓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회의 법적인 제도나 장치들은 개선되어야 하고,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서명이라도 해서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원망을 하게 되면 내가 먼저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사장님 나빠요! 상사 나빠요!’라고 하면 나 스스로가 행복하지 못하고 파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적어도 선민이라면 어떻게 사장님과 직장 상사와 더불어 스트레스 없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스트레스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사에서도 선민 됨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러한 질문과 요청에 대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는다고는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면서 선민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무감도 느끼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지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문제이고 교회가 문제입니다.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는 세상에서 선민 됨을 상실하기 때문인데, 자꾸 교회 안으로 모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선민 됨을 유지할 수 있는 자들로 준비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도 강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7~31절까지 세 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갈렙의 조카이자 사위인 옷니엘이 나오고, 두 번째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에훗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31절에 한 줄로 삼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지를 적용하다보면 ‘사장님 나빠요!’라는 마음 상태를 극복하면서 직장상사와 더불어 선민 됨을 잃지 않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나오게 됩니다.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라고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와 다산을 섬기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구약 선민의 역사가 망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즉 돈 벌어 부자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사업이든 장사든 수적인 부흥에 마음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뜻하는 바는 세상 사람

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선민 됨의 특징인 거룩함과 구분됨을 버렸다는 것이고, 이 땅 위의 인간세상으로 진입하게 되는 경위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벌어 부자 되고 싶고, 내가 하는 일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갑이 되어서 이 땅을 사는 자들이 선민입니다. 장갑의 기능과 효과는 장갑이 접촉하는 물질이 장갑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처럼, 선민은 이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을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이 선악을 판단하게 되고, 인간세상이 좋다고 판단하는 그것만 있으면 좋을 것 같다거나, 그것만 없으면 편할 것 같다는 타락의 결과로 가치판단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상이 정한 가치를 마음이 동일하게 좋아하면서 세상으로 진입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데 나도 돈을 좋아합니다. 선민의 선민 됨의 시민권을 포기하고 이 세상 안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에서 발급하는 비자카드는 세상에서 정한 기준인 돈, 권력, 인기 등을 무척 좋아해서 침을 흘리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마6:24절에 주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라고 하시는데 ‘돈을 미워하라’는 말씀입니다. 미워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돈을 마음에 끌어 당겨서 좋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좋아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려면 돈을 미워해야 합니다. ‘경히 여긴다.’는 것은 ‘멸시한다.’는 것인데 ‘돈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민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은 ‘돈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가치를 좋아하면서 세상으로 진입해 들어갈 때 선민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 특히 사사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 족속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섬기도록 하시는데 이 일이 반복됩니다. 즉 세상이 정한 가치를 좋아하면서 세상 안으로 진입해 들어가면, 세상을 지배하는 왕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세상의 가치를 마음에 담게 되면, 곧바로 세상으로 진입하게 되는데 세상으로 진입하게 되면, 바로 내게 주어지는 상황은 천 층, 만 층, 구만 층의 계급적 서열 가운데로 들어서게 됩니다. 돈, 학벌, 권력 등의 가치를 획득한 정도에 따라서 이 세상 안에는 서열이 생겨납니다. 아무리 민주사회라도 이 서열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가치를 향해서 모두가 다 침을 흘리고 달려가고 있는 한, 그 가치 획득의 정도를 따라서 서열이 생기는 것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서열상 내 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비굴해질 정도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마음에도 없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많이 가진 사람 앞에서 비굴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장님께 매이는 것이 당연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치 서열상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해버립니다. 돈을 많이 못 벌면 못난 사람이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서열상 아래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고, 나보다 서열상 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굴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서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인간적으로 묶인 가족이나 친구들에 대해서도 이 서열과 무관한 삶을 살 수는 없게 됩니다. 자식을 기르면서도 돈에 대한 가치, 권력에 대한 가치, 인기에 대한 가치 등 높은 서열에 끼워 넣기 위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자녀를 돈 많이 벌수 있고 높은 권력을 가질 수 있도록 양육 하는데, 자녀를 바알과 아세라에게 바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우리가 다 그렇게 키우고 있어요.
우리가 스티브 잡스를 마음에 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장님은 늘 부딪히니 원망을 하고, 나도 얼른 돈을 많이 벌어서 사장님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스티브 잡스를 꿈꾸고 빌 게이츠를 꿈꾸고 구글의 래리 페이지를 꿈꾸고 페이스 북 창업자인 마크 저크버그를 꿈꿉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마음에서 암살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잘못 들으면 큰 일납니다.

사사 옷니엘의 이야기 다음에 베냐민 지파 사람 왼손잡이 에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옷니엘이 죽자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종교를 따라 세상으로 진입해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이나 조공을 바치며 섬기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를 좋아해서 진입하자 이미 그 가치를 엄청나게 확보하고 있는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길 수밖에 없는데 에글론이 사장님이 된 것입니다. 17절에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로 묘사했습니다. 사사 에훗이 조공을 바치러 갈 때에 45.6cm 칼을 허벅지에 차고 갔다가 혼자 들어가서 찔러 죽이게 됩니다. 18~22절에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뢸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 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서 왕의 몸을 찌르매 / 칼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 에글론의 죽음에 대해서 무척 잔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칼을 그대로 놔두었더니 '기름이 엉겼다'라고 합니다. 미성년자는 보면 안 되는 등급처리가 돼야 할 정도로 잔혹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획득한 에글론 같은 자들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마음으로 좋아하고 많이 누리는 자들을 영적으로 '마음이 비둔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을 섬깁니다. 세상의 가치를 앞서서 획득하는 자들로 영적 민감성이 제로인 자

들이므로 절대로 선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자들을 '내 마음 안에서 암살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세상의 가치를 좋아하는 내 마음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배설물로 여겨서 내 마음 안에서 세상의 가치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서열로부터의 자유가 주어지는데, 돈과 승진을 좋아하지 않고 직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때에 직장에서 승진과 월급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사장님 나빠요!'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장님이나 직장상사 모두에 대해서 서열상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만하거나 멸시하지도 않고 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굴해지지도 않습니다. 가치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서열로부터 자유로워지는데 이것이 선민이고, 이렇게 될 때에 사장님을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요셉 때에 애굽 왕 바로가 천하 만물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요셉을 받아들일 때에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같이 받아들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됨으로 애굽 왕이 다스리는 영역 전체가 하나님의 뜻 경계 안으로 취직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 전체가 하나님의 뜻 안으로 포함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과장 자리에 있으면서 월급과 승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서열로부터 빠져나와서 그 회사에 대한 하나님의 장갑이 되면, 내가 회사를 하나님의 뜻 안으로 취직시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내가 사장님을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는 세계 안으로 취직을 시켜줘야 하는 사람이고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야단을 치는 사장님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가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과 같은 마음으로 사장님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과 승진을 같이 좋아하고 비굴해져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전철에서 '사장님 때리기'와 같은 게임이나 하게 되면 선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자유로워야 하는데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 안으로 진입하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마지막 한 줄로 사사 삼갈의 이야기로 해주십니다. 삼갈은 밑도 끝도 없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육백 명을 죽였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뜻하는 바는 우리가 마음으로 싸워야 하는데 우리의 막대기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가치가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민족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그 습성을 전염시키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직장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다 이방민족으로 돈을 추구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나는 하나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돈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승진을 원하고 사장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틈바구니에서 살다보면 이 성향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싸워야 하는데 그 유일한 무기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계속 승진과 월급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내 기쁨과 만족

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오는 것이지, 승진과 월급으로부터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나를 장갑 삼으시면 여러분 한 사람이 직장 전체를 하나님의 뜻의 세계 안으로 취직시키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그립바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서열상 꼭대기에 있는 자들이지만 그들이 좋아하는 가치를 사도 바울은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고, 그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과 구원의 뜻 안으로 취직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 "나처럼 되라"고 했던 것입니다.
삼갈이 블레셋 사람과 싸운 것처럼 십자를 붙잡고 내 주변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싸우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못 들어오게 하고 하나님이 들어온 상태에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사장님은 얽매이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 대상으로 바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를 내 마음에 붙박이로 고정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세상 가치들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리침으로서 사장님부터 말단 직원까지 회사 전체를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이끌어 들이는 선민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